

문화

‘경희의 소리’ 가락을 펼치다 … 풍물 연합 ‘대동굿패’

대동굿패 여름 정기 전수

정혜빈 기자 2015101892@khu.ac.kr

1980년대부터 대학생들은 “우리의 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자”는 마음으로 동아리에 모여 시끌마을로 찾아가 풍물을 배웠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권의 민중운동에 대한 폭압적인 탄압으로 풍물은 일시적 인 침체기를 거쳤다. 그들의 노력이 주춤했던 민족 문화를 깨웠고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동아리를 남겨주었다. 우리학교에도 정경대학의 ‘두래패’, 이과대학의 ‘한얼’, 공과대학의 ‘탈머리’, 전자정보대학의 ‘민족자주 터’, 생명과학대학의 ‘갱맥이’, 국제대학의 ‘열두마당’ 등의 풍물동아리가 활동 중이다. 풍물놀이는 탁 트인 넓은 마당이나 공터에 몇십 명의 사람이 모여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공연된다. 풍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만큼 같은 경희인이 모여 부족함을 채우고 재미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80년도에 연합회를 이뤘다. ‘임실필봉가락’을 치는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전자정보대학, 국제대학의 풍물동아리가 모여 국제캠퍼스 풍물동아리 연합회 ‘대동굿패’를 만들었다. 대동굿패는 풍물을 배워 오기 위해 여름, 겨울 두 번에 걸쳐 전수를 떠난다.

대동굿패는 8월 17일부터 8월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여름전수를 위해 강원도 영월군 중동면으로 향했다. 대동굿패는 ‘열두마당’ 출신인 김민규 사부(회계학 89)를 중심으로 진도북놀이를 가르칠 최재연 사부, 설장구를 가르칠 이호정 사부, 태평소를 가르칠 이명민 사부를 초빙했다.

학생들에게 외부에서 진행되는 전수는 비용이 부담된다. 대동굿패는 전수기간동안 중동면에서 오래도록 풍물을 가르쳤던 김민규 사부의 도움으로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할 수 있었다. 대동굿패는 그 보답으로 중동면사무소 앞에서 8월 23일 오후 5시 주민들과 어우러져 공연을 했다.

주민들은 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막걸리를 따라주었다. 더운 별 아래 땀 흘리는 학생들의 목을 죽여주며 주민들이 학생들에게 했던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반갑다’는 인사였다.

이날 공연은 마을을 돌며 공연을 알리는 ‘길놀이’와 본 공연인 ‘판굿’으로 이루어진다. 판굿은 채굿-호하굿-방울진-미지기진으로 이루어진 ‘앞굿’에 뒤이어 재능기와 영산의 순서로 진행된다. 중동면사무소 앞은 풍물패의 의상인 ‘치복’을 입고 색띠를



맨 30여명의 대동굿패 단원들로 가득 찼다. 공연을 준비하는 단원들에게 어떤 공연이 되었으면 하는지 물어보았다. 현 대동굿패 상쇠 김윤환(전자·전파공학 2011) 군은 “팽과리와 북, 장구, 잡색, 태평소 등의 악기가 조화롭게 하나의 소리를 내며 단원과 관객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연의 목표이다”라고 이야기 한다.

풍물패를 이끄는 상쇠가 팽과리를 치기 시작하면서 경쾌한 ‘캔지캔지 개캔지’ 소리가 공연의 시작을 알렸다. 하늘을 깨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팽과리 소리와 함께 길놀이가 시작된 것이다. 대동굿패 단원들은 열을 맞춰 마을을 한 바퀴 돈다. 한데 어우러진 길굿장단 소리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자 주민들은 밖으로 나와 박수를 보낸다.

곧이어 상쇠를 중심으로 단원들이 둑그렇게 모여 느리게 채굿장단을 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나누던 닭소를 멈추고 공연에 집중했다. ‘덩덩쿵덕쿵’이 ‘덩덩쿵덕쿵쿵’으로, 채굿장단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단원들의 움직임도 커졌다. 채굿 장단에 이어 임금의 명령과 이에 복종하는 신하의 답을 풀어낸 군인 호허굿이 벌어졌다. 상쇠는 의살스러운 표정으로 팽과리를 쳤고 주민들은 연신 웃으며 박수를 쳤다. 그 이후에는 동, 서, 남, 북 그리고 하늘에서 오는 액(厄)을 막아 내는 의미에 굿인 ‘방울진’이 이어졌다. 단원들은 달팽이모양의 진(陣)을 빠르게

맡고 천천히 풀기를 세 번 반복한다. 그러는 동안 단원들의 얼굴은 달아오르고 손에 땀이 차서 흘러내리는 채를 몇 번이고 고쳐 잡는다. 연이어 두 개의 편을 만들어 전쟁하는 모습을 풀어낸 미지기진이 펼쳐지고 격렬한 장단이 울리는 가운데 단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호흡을 맞춘다. 한바탕 흥이 고조되고서 단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유로운 장단을 춤추며 치는 풍류굿을 펼쳤다. 잡색은 딸에게 보여주려고 열심히 사진을 찍던 아주머니의 손을 잡고 판 한가운데로 나와 함께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다. 춤을 추던 아주머니는 소매를 길게 빼어 땀 흘리는 단원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단원들이 재능기준을 준비하는 동안 영월군 중동면의 면장 죄영로씨는 “주민 분들이 많이 좋아하신다”며 “이런 공연은 올해 들어서 처음인데 학생들이 와서 일단 반갑고 공연에 흥이 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앞굿이 끝나고 개인기량을 자랑하는 재능기가 시작된다. 재능기는 설장구와 진도북놀이의 순서로 공연되는데, 이 중 설장구는 장구 중 으뜸이라는 뜻으로 장구를 어깨에 메고서 화려한 몸짓과 가락을 보여준다. 한편 전남 무형문화재 18호인 진도북놀이는 흔히 양복이라고 부른다. 여타지역과 다르게 북채를 양손에 쥐고 치기 때문이다. 힘찬 북 가락과 춤사위가 적절히 어우러져 있는 놀이다. 여름전수기간 동안 배운 것을 선보이는 결과물이기에 단원들은 지

금까지와는 달리 긴장된 얼굴로 공연을 시작했다. 난이도 높은 재주들이 주민들의 시선을 끌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능기가 끝나고 다음 순서인 영산(零散)을 위해 상쇠가 장구치배 중 우두머리인 상장구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영산은 상장구가 원할 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산을 청하는 상쇠에게 상장구는 술을 따라주었다. 상쇠가 술을 마실 동안 단원들은 목청을 높여 사랑가를 불렀다. “너를 보면 신비롭고 나를 만나면 좋을 시고”라는 노랫말을 따라 단원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노래가 끝나고 영산이 시작되었다. 다시 상쇠를 중심으로 등그렇게 모여 점차 빠르게 장단을 쳤다. 남은 흥을 모두 쏟아내는 판굿의 마지막 순서인 만큼, 많은 주민들이 판으로 들어와 단원들과 같이 하늘을 향해 높이뛰고 단원들을 따라 춤을 추었다.

공연이 끝나고 ‘민족자주 터’ 상쇠 헌행(전자·전파공학 2014)군은 “각 단대 대동굿패 사람들이 모여 공연을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고 씩 웃을 때 기분이 가장 좋았다”며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떤 동작을 취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해본 사람만 알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주민들은 이제 돌아가려는 단원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가며 아쉬움을 전했다. 단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미에도 땀이 맺혀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만난 한 할아버지는 풍물을 좋아하시나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학생들이 한 풍물을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은 우리 가락을 들으면 흥이 나게 되어있어. 더군다나 손주 같은 학생들이 와서 치는데 어깨를 들썩이지 않을 수 없지”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들으니 학교에서 공연하던 풍물동아리 옆에 빈 관객석이 생각났다. 풍물은 기자에게도 생소한 분야였지만 우리 가락이라는 이름을 걸고 ‘흥’을 내기 위해 함께하는 그들의 표정은 모두가 아는 ‘행복함’이었다.

• **길놀이** : 농악대, 길군악대, 탈꾼 따위가 탈놀이 본마당에 들어가기 전에 탈춤을 놀고까지 풍악을 울리면서 가는 행렬.

• **판굿** : 걸립판나 두레패들이 넓은 마당에서 갖가지 풍물을 갖추고 순서대로 재주를 부리며 노는 풍물놀이.

• **치복** : 풍물패가 입는 공연 의상.

• **채굿** : 풍물놀이 판굿의 하나. 일채, 이채, 삼채 따위의 징을 치는 수대로 장단을 차례로 친다.

• **잡색** : 풍물놀이 및 민속놀이에서 정식 구성 원이 아닌,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등장하는 사람.

세계 최초 융복합 연구 중심대학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

DGIST 대학원

2016 봄 학기

학생모집

21C 세계 융복합 과학기술의 중심, DGIST에서
지식창조형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로의 꿈은 이루어집니다!

원서접수

10.15 THU ~ 10.29 THU



DGIST 캠퍼스가 궁금하다면?

www.dgist.ac.kr/virtualtour

전공별 모집과정

전 공

신물질과학전공

과 정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가능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로봇공학전공

과 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뇌·인지과학전공

과 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New Biology전공

과 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전공 오픈랩

■ 일 시 : 9.19(토) 11:30

■ 참가대상 : 대학교 3, 4학년 및 대학원 재학생

■ 신청방법 : DGIST 입학홈페이지 사전신청 (admission.dgist.ac.kr)

- 9.11(금) 18:00까지 신청자에 한하여 참가 가능

■ 참가자 지원사항 : 시외교통비 지원,

무료셔틀버스 운행, 간단한 중식 및 기념품 제공

장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교육 및 연구장학금 지원

전원 입주 가능

전공별 해외 유수대학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박사과정 대상 100% 편입 가능

■ DGIST 융합연구원 및 소속 7개 센터

(DGIST-LBNL신물질연구센터, 마이크로레이저 융합연구센터, DGIST-ETH미아크로로봇연구센터, 고신CPS연구센터, 미래지능융합연구센터, 태양에너지융합연구센터, 웨니스융합연구센터)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 전공별 특성화된 장학혜택은 각 전공 홈페이지 참조